

유네스코 창의도시 광주 발전방향 논하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 12일 문화전당서 열려 유네스코 창의국장 기초 발제·국내 창의도시 비전 논의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의 광주의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2019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책 포럼의 주제는 'CITY Visualization :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를 보다'.

유네스코 본부, 창의도시 관계자, 미디어아트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유네스코 창의도시 광주가 나아가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과 아시아문화원이 공동주관하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후원한다. 이번 포럼은 11일부터 13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 및 광주문화재단에서 본 행사, 네트워킹의 밤, 국내 창의도시 간 분과회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난해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던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 <광주문화재단 제공>

과 연계해 미디어아트페스티벌 및 전시의 발전방향에 대해 다룬다. 김마라(2019 미디어아트페스티벌 감독), 톨 히감(영국 요크 미디어아트 감독), 이대형(독립큐레이터) 등 현장의 전문가를 초청해 주제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오는 13일에는 광주문화재단에서 국내 창의도시 간 회의를 열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과학문화본부 김귀배 본부장의 발제 등 창의도시 비전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2019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통해 정책포럼의 참가자들에게 수준 높은 미디어아트 전시와 퍼포먼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포럼의 사전접수는 인터넷(<https://bit.ly/2muP1gl>)을 통해 가능하고, 현장접수는 12일 오전 10시~10시 30분에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창의도시사업단으로 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연계 'GB토크, 퍼블릭 프로그램' 성료

예술감독·참여작가 등 참여 내년 행사 전시방향 등 공유



안젤로 플레사스

2020 광주비엔날레는 '떠오르는 마음, 마주하는 영혼 (Minds Rising, Spirits Tuning)'이라는 주제 아래 예술적이고 이론적인 기제로서 확장된 '마음의 스펙트럼'을 탐구해 인간의 지성을 다양한 문화예술로 풀어낼 계획이다. 또 40주년을 맞는 광주민중항쟁을 다양한 각도로 확장하고 해석한 작품도 선보인다.

13회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GB토크, 2020광주비엔날레 퍼블릭 프로그램'이 예술감독, 참여작가, 연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일과 2일 열렸다. 참여 작가들의 1차 국내 리서치 일일작가도 일부 공개됐다. 이번 퍼블릭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가 9명과 소니아 고메즈 등 모두 31명이다.

1일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열린 행사에서 테프네 아야스와 나 타사 진발라 예술감독은 2020광주비엔날레 전시방향을 공유했다. 내년 행사는 전 지구적인 생활 체계와 공동의 생존을 위한 예술적 실천에 방향성을 두고 전시, 퍼포먼스 프로그램, 온라인 출판 플

랫폼, 작가들과 사상자 및 이론 과학자 등을 초대한 퍼블릭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두 사람은 특히 "저항의 역사와 공동의 트라우마가 오랫동안 스며있는 도시 광주에서 그 역사를 의식한다는 전제와 함께 마음을 확장할 수 있는 실천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전시 기획 의도"라며 "5월 민중항쟁이 일어난 지 40년을 앞둔 지금, 삶과 죽음 사이의 여러 갈래의 문과 길을 오가는 과정을 통한 치유, 저항, 재구성의 고유한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담에 참여한 페르난도 필라 로드리게스는 정신적 존재로서의 기술적 조각을 해석했으며, 주디 라들은 자동화된 카메라의 눈을 적용한 움직임이 입력된 기계 학습에 대해 발표했다. 그밖에 인주 천, 존 제레드, 김실비, 갈라 포라스-킴 등도 함께 했다.

2일에는 안젤로 플레사스의 퍼포먼스와 조현택, 김상문 작가가 참여한 작가와의 대화가 이어졌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비상무용단'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작품 '펜로즈의 시계' ...장혜원 최우수연기상·이종영 무대예술상 수상도

무용(舞臺) 광주가 또 한번 전국 무대에서 빛났다.



비상무용단의 '펜로즈의 시계' 공연 모습.

지난 5일 막을 내린 '제28회 전국무용제'에서 광주 대표로 출전한 '비상무용단' (안무 박종임·송원대 실용예술학과 교수)이 대통령상을 포함한 3관왕을 차지했다. 이번 수상으로 광주는 28회 행사 중 대통령상을 11번째 수상하는 기록을 달성했다.

(사한국무용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주최로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주제는 '일상이 예술이다'.

비상무용단은 작품 '펜로즈의 시계'를 무대에 올려 전국 15개 시도 대표를 제치고 대통령상을 수상해 상금 2000만원의 주인공이 됐으며, 개인상으로 최우수연기상(장혜원), 무대예술상(이종영)도 잇따라 수상했다.

'펜로즈의 시계'는 꿈과 현실, 욕망과 이상에서 고민하는 현대인의 일상을 시계의 모습에 빗대어 몸짓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특히 무대 세트, 조명을 활용해 패종시계 태엽과 진자의 움직임이나 시간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무한한 시간 위에

서 끝없이 계단을 오르는 고된 삶을 안무로 표현하는 데 역점을 뒀다.

안무를 맡은 박종임 예술감독은 "펜로즈의 시계"는 특별한 한 두 명의 무용수에 의지한 작품이 아니라 무용과 연출, 조명, 의상, 세트, 음악, 분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원이 한마음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태엽을 감은 시계가 다시 살아나듯 지난 수개월 동안 멈추지 않고 달려온 단원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창단한 비상무용단은 '관

객이 공감하는 공연'을 모토로 문화 재능 기부, 사회공헌 교육 등으로 활동하는 단체다. 박 예술감독은 2009년 '제18회 전국무용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뒤로 10년만에 대통령상을 탈환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편 광주무용협회(회장 이영애)는 전국무용제에서 눈에 띄는 기록을 갖게 됐다. 최초의 대통령상 수상작인 광주발레단의 '아가야 이 세상엔' (4회)를 비롯해 대통령상 11회 금상 6회, 은상 6회 등 총 23회 수상 기록을 가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글날 '우리말 겨루기 한마당'

9일 광주시립미술관

573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을 가지고 바르게 인식하기 위한 다채로운 한글날 행사가 펼쳐진다.

전남대 국어문화원(원장 손희하 국문학과 교수)은 오는 9일 오후 1시 광주시립미술관과 인근 행사장에서 '제5회 광주 시민 우리말 겨루기 한마당'과 '우리말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

'우리말 겨루기 한마당'은 광주시민이면 누구나(두 사람이 한 모둠) 참여할 수 있다. 대회방식은 'KBS 도전 골든벨'처럼 진행되는데 객관식 문제는 O·X로, 주관식은 개인 칠판에 답을 써야한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 외부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가 펼쳐지며 국어와 한글에 대한 여러 자료와 문해 교육 참여자의 시화 대화장 주변에 전시된다.

참가 신청은 7일까지 신청서와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를 전자우편(korjnu@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리말 겨루기 한마당'은 선착순으로 80모듬을 접수하고, '우리말 말하기 대회'는 예선 참여용 말하기 원고를 A4 1~2장 내외(말하기 3분 기량)로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바로크 시대 작곡가 비발디·바흐·헨델을 만나다

광주여성솔리스트앙상블 연주회 7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여성솔리스트앙상블.

광주여성솔리스트앙상블(대표 이환희)이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연주회 '바로크 시그니처'를 연다.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 '월요콘서트' 16번째 무대로 기획된 이날 공연은 비발디, 바흐, 헨델 등 유명한 바로크 시대 작곡가의 곡을 새롭게 해석한 성악곡으로 선보이는 자리다.

이날은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날 울게 하소서', 오페라 '세르세' 중 '나무 그늘이여',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스키타라의 '마음 속에 느끼네', '태양은 이미 갠지스강에', 페르글레시의 '만일 날 사랑하고 한숨진다면', 칼다라의 '마음의 영혼' 등을 성악 무대로 선보인다. 비발디의 '플루트 협주곡 제3번 흥방울새',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립스키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도 피콜로, 첼로 연주로 무대에 올린다.

지난 2017년 창단된 광주여성솔리스

트앙상블은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광주 지역 유익한 여성 전문 연주단체로, 오페라 주역가수, 오케스트라 수석 등 솔리스트로 활동 중인 여성 전공연주자들로 구성된 연주단체다.

이날은 소프라노 이환희, 메조소프라노 김사라, 플루트 김윤희, 첼로 박효은, 피아노 이현주가 출연하며, 테너 유기수와 바리톤 김지욱이 초청받아 함께 무대를 꾸민다.

입장 2만원, 학생 1만원(선착순 100명)./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담
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